

‘시대의 모범’ 김춘섭

홍색기억을 수호하고 홍색유전자를 전하다



‘시대의 모범’ 김춘섭 / 자료사진

사회의 힘을 모아 자금을 마련한 그는 선후하여 유명 항일전쟁 영웅들, 중요 전투 유적지, 중대 역사적 사건을 기리는 기념비 117개를 세웠다. 60세에 컴퓨터 타자를 배우기 시작, 청소년을 위한 홍색교육 자료 34권, 총 100만자가 넘는 분량을 집필하며 혁명정신의 씨앗을 뿌렸다. 동장영(童长荣) 열사릉원을 책임지고 건설했으며 중국공산당동만특별위원회 소재지인 소왕청항일유적근거지 유적지를 재건했다. 그가 바로 ‘시대의 모범’ 김춘섭이다.

2005년 4월부터 지금까지 김춘섭은 왕청현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다. 20년간, 50여년의 당년한을 가지고 있는 이 로당원은 시종 항일전쟁 역사와 영웅사적들을 기록하고 보존해왔다. 그 과정에서 홍색기억을 수호하고 홍색유전자를 계승하며 홍색후계자들을 양성했다.

2014년, 한 민간수집가가 ‘왕청영렬넷’(汪清英烈网)을 보고 김춘섭을 찾아와 가치가 백만원이 넘는 200여점의 일제 강점시기 유물들을 넘겨주었다. 김춘섭은 이 유물들을 토대로 왕청현서류국의 지지하에 ‘왕청현항일전쟁기념관’을 설립했다. 같은 해 9월 16일, 기념관이 대외에 개방됐고 참관자는 연인수로 만명에 달했다.

김춘섭은 기념관 개관 초기에 전문 해설원이 없어 관장도 하고 의무해설원도 겸했다. 관람객이 한명이라도 그는 열심히 해설했다. 김춘섭은 “연속 해설하는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누군가 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보람차다.”고 말한다.

대량의 왕청현 항일전쟁 역사자료

들을 워던 중 김춘섭은 27세에 희생된 동장영열사의 사적에 감동되었다. 영웅에 대한 존경심은 김춘섭으로 하여금 영웅이 잠든 곳을 직접 보고 싶게 만들었다. 오랜 세월 탓에 동장영열사의 묘지는 초라했다. 김춘섭은 동장영열사의 묘를 수리하고 비석을 세우며 봉원을 건립해 후손들이 그의 위대한 공적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봉원의 건립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부족이었다. 시작된 일을 되돌릴 수 없어 김춘섭은 체면을 내리놓고 옛 부하, 동료, 민영기업가들을 찾아가 자금을 신청했다. 이의 ‘오로(五老)’(로간부, 로전사, 로전문가, 로교사, 로모범)들에게도 기부를 호소했다. 모금에 앞서 김춘섭이 들려준 동장영열사의 사적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의 간절함에 공명하는 이들이 하나둘 기부에 참여했다. 2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마침내 자금이 마련되었다.

자금 마련이 어려웠기에 쓰는 데 더욱 신중했다. 김춘섭은 열사릉원과 기념비의 계획, 설계, 시공을 직접 맡았다. 한정된 자금을 알맞게 쓰기 위해 물과 빵으로 허기를 달래며 왕청현에서 수백키로미터 떨어진 채석장을 몇번이나 오갔는지 스스로도 모를 정도였다. 2011년 6월, 동장영열사릉원이 완공되었을 때 김춘섭의 체중은 72키로그램에서 60키로그램

으로 줄었는데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유명한 항일전쟁 열사들의 사적을 수집하기 위해 김춘섭은 전국 10여개 성을 찾아다녔고 2만키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두 발로 왕청현의 ‘항일전쟁도’를 그려냈다.

1932년 11월, 중국공산당동만특별위원회는 왕청현 소왕청항일유적근거지로 전이했다. 당시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김춘섭과 그의 동료들은 잇달아 동만특별위원회의 병기공장, 인쇄공장, 병원, 이불공장, 복장공장 등 8곳의 항일전쟁 밀영을 재건했다. 그리고 동장영(童长荣), 위증민(魏拯民), 양림(杨林), 김금녀(金锦女), 강춘화(姜春花) 등 9명의 영웅들을 위해 동상을 세웠다. 또한 자연석(自然石) 31개를 사용해 총길이 1,400미터에 달하는 ‘동만항일전쟁력사회랑’을 건설하여 왕청현의 당사학교양기지로 사용했다.

김춘섭과 그의 동료들은 20년간 117개에 달하는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으니 비문을 새겨야 했다. 이를 위해 김춘섭은 대량의 자료들을 찾으면서 열사들의 생애를 고찰, 론증하여 2만자가 넘는 조선어와 한자 비문을 작성했다.

항일전쟁정신을 전하고 열사를 기리며 비석을 세우는 동시에 김춘섭은 차세대관심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홍색유전자를 혈맥에 새기고 홍색전통을 대대로 전하기 위해 2010년에 김춘섭은 왕청현제4소학교의 사상품성교육 주임 량염(梁艳)을 찾아가 항일영웅 동장영의 이름을 딴 중대를 설립할 데 대해 제안했다. 그후로 김춘섭은 여러번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왕청 영웅들의 사적을 들려주었다.

10여년간, 김춘섭은 수많은 학생들을 인솔하여 동장영열사릉원, 김상화(金相和) 열사릉원 등 애국주의교양기지를 방문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김춘섭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투쟁하며 용감하게 승리한 선렬들의 혁명정신을 전수했다.

현재, 김춘섭은 전 현 42개 중소학교에 영웅중대(반)를 설립해 홍색씨앗을 학생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다. 김춘섭은 학생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맞추고 항일전쟁정신을 계승하여 새시대에 새 로정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팔순을 넘긴 김춘섭은 “차세대관심사업은 당대에 공을 세우고 후세에 리익을 남기는 위대한 사업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이 자리에서 계속 일하며 국가와 사회에 유용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보낼 것”이라고 말한다.

/ 김림일보



‘시대의 모범’ 김춘섭이 아이들에게 영웅사적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 자료사진

봄꽃처럼 만개한 연변 ‘애심어머니 사랑’

3월 22일, 연변애심어머니협회 5기 4차 리사회 확대회의 및 제24차 사랑나눔 행사가 연길 한성호텔에서 성황리에 펼쳐진 가운데 김해련이 최순희로부터 회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행사에서는 160여명 애심인사들의 십시일반으로 사랑의 성금 14만 4,080원을 모금하고 어려운 가정 학생 및 장애여성 70명에게 조학금(助学金) 및 빈곤부족금 총 9.8만원을 조달했다.

연변애심어머니협회 최순희 회장은 “지난 한해 동안 연변주내 여러 지회와 함께 조달한 애심후원금(기부물품포함)은 30여만원에 달한다. 애심인

사들의 후원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장애인 여성들이 곤란을 이겨내는 데 매우 필요했다.”고 전했다.

연변부녀연합회 주석 교건영, 전국 애심여성포럼 회장 리영, 연변화양그룹 리사장 리성, 갈림천우그룹당위서기 전규상, 연변조선족기업협회 회장 한길 등 인사들은 추사에서 연변애심어머니협회가 민간사회조직 공익단체의 선봉군으로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서 연변의 여성과 아동 공익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 뚜렷한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협회는 ‘청소년 희망여름캠프’를

조직했는데 특강, 장학금(4.56만원) 전달식, 유희성 운동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알차게 진행되어 청소년들에게 잊을 수 없는 ‘꿈의 여행’을 선물했다. 전국애심여성포럼 제14회 워크숍 및 제13회 차세대여성리더양성프로그램 행사에 참여해 배움의 장, 교류의 장을 만들어갔으며 전국 애심여성들의 사랑의 성금 1만 3,974원과 100여명의 학생복을 연변성주청소년체육구락부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인생의 기로에 들어설 만한 녀학생을 연변애심어머니협회의 청소년 꿈터인 연변성주청소년체육구락부에 편입시켜 리설봉 교장의 휘

하에서 활쏘기 운동건iar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애심어머니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학에 입학한 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각 현, 시에 사랑의 이불 전달하기, 로인질 맞이 행복특강, ‘홍색리집’ 견학, 장애인보호시설에서 김치 담그기, 아동질 선물 전달하기 등 다양한 행사를 조직하여 약소군체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삶의 희망과 가족의 따스함을 느끼게 했다.

교육계몽에서 수많은 성과를 올리며 후대 양성 사업에서 실력과 경험을 쌓아온 김해련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향후 협회는 정부 해당 부문과 사회각계의 지지하에 회원들과 함께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애심공의 대오에 합류할 수 있게 노력하며 회원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협회를 사회공익 브랜드 ‘애심어머니’로 만들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이날 협회에서는 연변부녀연합회의 해당 정서에 따라 산하에 부녀연합회 집행위원회를 설립하고 손준옥을 주석으로 임명했다.

/ 하철특약기자



혼인신고, 고향에 가지 않고도 가능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는 <혼인신고조례(개정초안)>를 심의, 통과했다. <조례>를 착실히 관철 시달하고자 민정부는 혼인신고 ‘전국 통합처리’ 시행, 혼인가정 상담서비스 최적화 등 중점사업을 중점적으로 틀어쥐게 된다.

하며 혼인신고 창구의 서비스 규범, 사업규율, 문명한 용어, 서비스 급지어를 명확히 하도록 독촉한다. 정보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혼인신고 예약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혼인신고 정보 데이터의 네트워크 확인을 심층적으로 전개한다.

◆ 혼인신고 ‘전국 통합처리’ 시행

2021년 6월부터 전국의 2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2차례에 걸쳐 혼인신고 ‘타성 통합처리’ 시범사업을 연속 전개했다. 군중들의 요구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성공 경험을 충분히 총결한 후 혼인신고 ‘전국 통합처리’를 시행하는데 때가 되면 당사자의 혼인신고는 더 이상 상주 호구 소재지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민정부는 지속적으로 규범화 건설을 강화하도록 각 지역을 지도하고 접수 조건, 처리절차, 증명자료 등 요구를 명확히 한다.

혼인신고기관은 당사자가 제공한 증명자료가 실제 자료인지, 법적 요구에 부합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법에 따라 신고 업무를 취급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제도화 건설을 강화하고 혼인신고사업의 규범화를 보완

◆ 혼인가정 상담서비스 최적화

각 지역의 혼인신고기관에서 종합적인 혼인가정 상담서비스 업무를 강화하도록 독촉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당사자에게 더욱 과학적이고 전문적이며 효과적이고 따뜻한 혼인가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각 지역의 분류 시책 견지를 지지한다. 혼전교육, 혼인가정관계 상담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담 내용, 상담 전략, 상담 중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감성소통, 심리상담, 분쟁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와 가정교육을 전송하도록 지도한다. 혼인가정 상담서비스의 좋은 기회를 잘 리용하여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힘써 고양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계승하도록 한다. /인민넷-조문판

중국부녀발전기금회

‘어머니 건강 쾌속차량’ 발차식 안도현서

—‘어머니 건강 쾌속차량’ 기증 부녀 아동 건강 수호에 조력

최근 중국부녀발전기금회(中國婦基會) ‘어머니 건강 쾌속차량’ 발차식 안도현중의원에서 있었다.

로해에 따르면 ‘어머니 건강 쾌속차량’ 프로젝트는 전국부녀연합회와 국무원 부녀아동사업위원회에서 발기하고 중국부녀발전기금회에서 주관하는 하나의 중요한 공의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건강리념, 건강지식, 건강봉사 전달’을 취지로 부녀 아동의 평안과 건강 권익을 보장하는 순회 의료차량으로 부녀와 아동들에게 따뜻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의료건강봉사를 제공한다. 안도현에 도입된 ‘어머니 건강 쾌속차량’은 2025년 김립성에서 첫번째로 지원받은 차량으로 안도현 부녀 아동 건강사업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된다.

발차식후 ‘어머니 건강 쾌속차량’은 안도현 명월진 오봉촌(明

月鎮五峰村)으로 이동해 ‘의료와 약품, 건강을 전달하고 마음과 정으로 민심을 따스하게 하자.’라는 주제로 무료진료활동을 조직했다. 10여명의 전문의료인들은 농촌 부녀와 군중들에게 중의 특색 진료, 심전도, 초음파, ‘두개암’ 선별검사 등 진료봉사를 제공하고 건강지식을 선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100여명의 촌민들에게 혜택을 준 동시에 2,000여원에 달하는 무료약품을 제공했다. 또한 촌민들이 집앞에서 종합 무료 의료봉사를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보건의식을 환층 제고하게 함으로써 광범한 호응과 찬사를 받았다.

안도현중의원 관련 책임자는 “병원은 ‘어머니 건강 쾌속차량’ 공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향촌과 사회구역에서 순회자선진료, 건강강좌 등 활동을 적극 펼치는 것으로 더욱 많은 정정에 건강 지식과 봉사를 제공하고 전민건강사업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피로했다.

/리전기자 /사건 안도현당 위 선전부

